

## Jump Into Another Catch —Joseph Heller의 *Catch-22* 분석—

배        중        인  
영 어 영 문 학 과  
(1982. 6. 30 접수)

### 〈요 약〉

본 연구는 일견 풍자와 환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황당무계한 대화로 가득찬 Joseph Heller의 첫 작품 *Catch-22*의 내면 구조를 살펴 본 것이다. 이 작품의 밑 바닥에는 어둡고 비극적인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어, 외면적인 희극적 분위기와 어울려 작품 전체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비극적 분위기는 조직사회의 모순에 대한 Yossarian의 인식과,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비극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그의 고립감에 기인하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모순에 찬 전시군대사회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반항하고 거부하다 결국은 탈출하는 한 공군장교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탈출은 결국 또 다른 함정에르의 도약일 뿐,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과 위협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Catch-22*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탈출은 진정한 자유의 추구이며, 자아를 實現하려는 모색이요, 스스로가 선택한 행동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

## Jump Into Another Catch —An Analysis of Joseph Heller's *Catch-22*—

Bae Jong Un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Received June 30, 1982)

### 〈Abstract〉

In this paper I tried to disclose the internal logic of Joseph Heller's first novel *Catch-22* which is seemingly full of chaotic and fantastic episodes, and nonsensical dialogues. The try naturally lead me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reaction of Yossarian, the hero, against the situation he is in, and to investigate the comic invention and the tragic mood underlying it. The underlying tragic mood of the work is mainly due to Yossarian's perception of his moral isolation, the irrationality of the army and the war, and the absurdities of human conditions. In the end he jumps to escape from the situation, only to be caught in another. That's what the *catch-22* seems to imply in the story. Nevertheless, the attempt is worth making, in that it is not compelled by the army authority, the organization, but chosen by his own free will.

### I.

Joseph Heller는 그의 성공적인 첫 작품 *Catch-*

*22*에다 irony, caricature, satire, metamorphosis, 외면적인 comic invention과 내면적인 tragic mood, 환상적인 episode와 사실적인 묘사 등 소설

양식이 포함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plot과 성격구성의 무시, 사건전개의 논리성 파괴, 그로 인한 빈번한 time-shift와 flash back,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의 表出 등으로 해서 비평가들로 부터 Black Humor 계열이니, 실존주의 계열의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열을 따지기 이전에 순전히 작품의 내용과 구성만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작품의 글격이 되는 조직사회와 개인의 대립이라는 문제를 거론하고, 훗점을 주인공 Yossarian에 맞추어, 그의 반항과 거부, Chaplain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살피고 후 작품의 제목인 Catch-22의 미파악으로 결론을 맺을까 한다. 생명의 회생을 강요하는 모순에 찬 군대 조직사회 속에서, Yossarian의 애초의 개인적인 공포와 반항이 잇달은 친구들의 죽음과 Chaplain과의 정신적인 交友를 경험하는 동안 차츰 every human tragedy와 human existence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감을 주목하고, 이를 본 연구의 main stream으로 삼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술한 거짓말 같은 episodes와 황당무계한 대화, 그리고 행동의 뒤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일견 무질서 해 보이는 작품 전체의 internal logic을 밝히고자 한다.

## II.

이 작품은 2차대전 중,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섬 Pianosa 미 공군기지를 무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의 군대라는 조직사회와 Yossarian으로 대표되는 개인을 날카롭게 대립시키고 있다. Frederick R. Karl의 ‘...It is not simply a neurotic reaction to his surroundings that gives this sense of absurdity: the absurdity is an actual fact, the consequence of many conflicting interests interacting and creating a world unfit for the individual.’<sup>(1)</sup>라는 말처럼 이 작품은 조직사회가 모순에 가득차 있다는 사실에서 부터 출발하고 있다.

조직사회의 absurdities 또는 애국심이나 국가 등을 명분으로 개인의 회생을 강요하고 있으나, 실상

내면적으로는 조직에 헌신한다고 하는 지배층들이 개인적 이익과 승진, 명예, 위신 등을 위해서 이러한 명분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들 수 있다. 이 지배층의 대표적인 인물이 Cathcart 대령. 장군으로 승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는 목표물만 있으면 비행사들의 생사는 아랑곳 않고 시습없이 출격시키며, 종교집회 시간에 Chaplain에게 왜 보다 성능이 좋은 폭탄이 제조되도록 기도하지 않느냐고 힐책할 만큼 냉철적인 전쟁 미치광이다. 그는 심지어 보다 나은 공중 사진 촬영을 위해 지상의 지저분한 마을들을 폭격으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는 여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비행사들은 일정한 출격회수를 채우면 비행근무 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Cathcart는 비행사들이 지정된 출격수를 채울 때마다 목표량을 늘여간다. 이러한 숫자놀음의 뒷에 걸린 비행사들의 모습은 ‘grotesque, like useless young men in a depression. They moved sideways, like crabs...’<sup>(2)</sup>에서 처럼 두려한 허수아비들을 닮아가고 있다.

또 Captain Black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상관인 Major Duluth의 죽음을 크게 기뻐한다. Duluth가 죽은 후의 그의 행동은 바로 또 하나의 전쟁 미치광이의 그것임이 분명하다. 그의 지배력 확장에만 신경쓰는 Peckam 장군, Dreedle 장군 등이 같은 부류의 인물들이라 하겠다.

해서 작품의 제목 Catch-22는 실재하는 법규라기 보다 사리사욕과 명예욕에 가득 찬 지배층들이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놓은 함정에 불과하다는 말로 일단 정의를 내리도록 좋을 것 같다. Text를 한번 살펴보자.

“There is a rule saying I have to ground anyone who is crazy.”(p.53)

“Sure, there is a catch,” Doc Daneeka replied.

“Catch-22. Anyone who wants to get out of combat duty isn’t really crazy... Orr was crazy and could be grounded. All he had to do was to ask: and as soon as he did, he would be no longer crazy and would have to fly more missions.”(p.54)

결국 군대라는 조직체를 지탱하고 있는 법규나 규

(1) Frederick R. Karl, “Joseph Heller’s *Catch-22*: Only Fools Walk in Darkness”, *Contemporary American Novelists*, Edited by Harry T. Moore, (Southern Illinois Uni. Press, 1964) p.135.

(2) Joseph Heller, *Catch-22*(Corgi Book, 1977) p.34.

칙이란 것도 조직의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을 말살시키기 위한 악의의 말작난에 불과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해서 reality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언어가 오히려 reality를 은폐시켜, 조직에 헌신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And regulations do say you have to obey every order’ (p. 68)란 말처럼 법규란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하는 함정일 따름이고, 여기에서는 어떠한 질문도 허용되어 있지 않다. Educational sessions의 episode는 이러한 법규나 규칙의 모순을 그대로 들어내는 한 예다. 지배를 위한 고의적인 언어의 논리, 더 나아가서 의미 자체의 파괴는, 상관에게 불손한 언동을 했다 해서 Clevinger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가장 풍자적으로 그려져 있다.

“Justice?” The colonel astounded. “What is justice?”

“Justice, sir—”

“That’s not justice... Justice is a knee in the gut from the floor on the chair at night sneaky with a knife brought...” (p. 91)

이러한 인물들 틈에서 공정한 재판을 주장하던 Clevinger는 ‘their unforgiving expressions with a hard, vindictive surface glowing in their narrowed eyes malignantly like inextinguishable coals.’ (p. 92)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 초두에 Yossarian이 편지를 검열하면서 벌이던 짓궂은 장난은, 논리 뿐 아니라 의미의 파괴까지도 서슴치 않는 인물들과 모순에 찬 현실에 대한 풍자적인 반적이라 하겠다.

두번 째의 absurdity는 지나치게 형식(form)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Scheisskoff 중위가 대표적인데 그는 R.O.T.C. 출신 장교인데 전쟁이 발발한 걸 기뻐했던 인물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매일 장교 제복을 입고 딱딱한 군인다운 음성으로 “Men”하고 부하들을 꾸어 볼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의 형식에 대한 관심은 행진시합에 대한 집념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행진 대회 때마다 우승하는데, 그 결과, 말하자면 형식에 충실함으로써, Cathcart 대령을 뛰어 넘어, 단숨에 중위에서 장군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identity도 결국은 하나

의 기록이나 서류로써 다루어지게 된다. Tony Tanner는 그의 *City of Words*란 저서에서, 군대의 의도가 조직을 통해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모든 개인적 충동을 기계적인 능률의 틀 속에 넣어 지배하리는데 있다고 요약하고 ‘...humanly obvious categories of life and death are utterly confused and inverted, replaced by pseudo-reality of forms, papers and regulations’<sup>(3)</sup>라 갈파했다. Doc Daneeka의 경우를 보자. Mcwatt는 시험비행 때 가끔 저공 비행하여 자기 친구들 머리위를 지나다니며 놀리기를 좋아했다. 한번은 해변에서 작은 뱀목을 타고 놀던 Kid Sampson이란 세상물경 모르는 친진한 어린 병사의 머리위를 날다가 그만 실수하여, 그의 시 있는 자세 그대로 허리를 동강내 버린다. 만토막으로 남은 하체가 물속으로 떨어진 건 그 다음 순간의 일이다. Mcwatt는 즉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알고 몇번 허공을 선회하다 비행기를 산허리로 돌진시켜 자폭해 버린다. Daneeka는 Mcwatt의 비행기를 타도록 그날의 비행명단에 들어 있었다. 허나 평소 비행기타기를 싫어하는 Daneeka는 그날도 행인지 불행인지,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그러나 Mcwatt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연연히 눈앞에 살아있는 Daneeka를 Mcwatt와 함께 사망처리해 버린다. 그리고는 그에게 지급되던 식사를 포함한 일체의 물품지급을 중단시키고, 고향에 있는 그의 아내에게 전사통지서를 발송한다. Daneeka는 생환하려고 퀴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타외에 의해 산 송장이 되어 버린다.

이와 대조적인 예가 전출와서 Yossarian의 tent에서 짐을 풀었던 조종사의 경우이다. 그는 정식 전입 신고도 하기 전에 갑작스런 출격으로 전사한다. 그러나 그는 정식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처리가 그 부대에서는 불가능하다. 해서 그가 남긴 개인 소유물은 언제까지나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Yossarian을 괴롭힌다.

병원에서 온 몸을 붕대로 감고, 단지 입에다 세운제만 꽂은 부상한 장교를 보고 Dunbar가 내 거르는 ‘There is no one inside!’나 ‘They’ve stolen him away.’ 등의 비명은 개인의 identity를 말살시키려는 악의에 찬 조직에 가하는 일각이요, 동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외침이다. 그래서 그

(3) Tony Tanner, *City of Words*, p. 73.

와 Yossarian 이 병실에서 침대만 바꾸면 그들의 identity 까지도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발한 착상으로 옆 침대의 Fortiori 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 Fortiori 의 행세를 하는 장난 역시 단지 침대 머리에 붙은 이름표만으로 사람을 구별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풍자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음의 Yossarian 과 간호원이 주고 받는 대화에서는 자신의 신체 각 부위도 자기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즉 개인의 identity 를 해체시키려는 조직과 이를 지키려는 개인의 갈등이 그대로 들어난다.

"I suppose you don't care if you kill yourself, do you?"

"It's myself," he reminded her.

"I suppose you just don't care if you lose your leg, do you?"

"It's my leg."

"It certainly is not your leg!" Nurse Cramer retorted. "That leg belongs to the U.S. Government. It's no different than a gear or a bedpan."(p.311)

다음의 absurdity 는 조직사회 구성원들의 기계적 둔감성이다. 위에 언급한 침대 바꾸기 장난에서, 간호원이나 의사들은 Yossarian 을 Fortiori 로 착각하고, 엉뚱한 환자에게 엉뚱한 병의 치료를 계속한다.

입원한 어느 대령을 안과, 피부과, 정신과 등 신체 각 부위마다 전문의가 달려들어, 기계를 분해하듯 그의 몸을 'drug, derogate, dust, and dredge, finger, photograph, remove, plunder, replace'(p.21)한다. 이는 바로 조직에 기계적으로 봉사하는 전문인들이 환자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채, 개인의 identity 를 해체시키는 모습이다.

병실의 난로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했다. 달려온 소방수들이 출격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소리를 듣더니, 모두 불을 끄다 말고 비행장으로 달려간다. 비행기들의 안전착륙을 확인하고 돌아오니 불은 이미 다 타고 잿더미만 남았다. '...and there was nothing for the disappointed firemen to do but drink tepid coffee and hang around trying to screw the nurses'(p.17) 바로 규칙에 얽매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 무리들의 모습이다.

Aarfy 가 자기의 소녀(매춘부)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다. 헌병들이 뛰어 들어와 소녀의 시체는 거들떠 보지 않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Yossarian 만 체포한다. 여기서 신분증이 서류나 형식을 나타낸다면, 소녀의 죽음은 바로 현실이다. 이러한 episode 들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인간적인 감정과 감각을 상실한 조직체의 기계적 부속품들이다.

마지막 absurdity 라 한다면, 전쟁의 무의미와 맹목성이 될 것이다. 이는 Nately 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번영된 나라이며, 어느 전쟁에서든 꼭 이긴다는 자랑에 대해 Rome 거리 어느 사창가의 한 노인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요약하면, 전쟁은 이기는 자가 꼭 패배한다. 역사적으로 영원한 최강대국이란 있을 수 없다. 이기면 건방져 가지고 더욱 싸우고 싶어지고, 그러다 결국 망한다. 로마나 독일제국들을 보라. 또 애국심, 애국심 하지만, 50개국, 60개국 사람들이 저마다 애국심으로 서로 싸운다면, 그 전쟁이 과연 목숨을 바칠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인가 하는 등의 주장들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그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들트썸, 타인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도 전쟁과 조직에 맹목적인 충성과 집착을 보이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의 내면적 동기는 ironical 하게도 대개가 이기적인 것에서 비롯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모순과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거부적인 태도와 반응을 나타내는 인물들이다. 예컨대 Yossarian 을 위시하여 Chaplain, Dunbar, Hungry Joe, Milo 등으로 모두 Yossarian 의 친구들이다(물론 그 중간에 전혀 두감각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Aarfy 나 Mcwatt 같은 인물들도 있다.).

Dunbar 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굴복하고, 체념해 버린 인물이다. 결국 그들은 그의 체념에 응하듯 그를 'disappear'시켜 버린다. Hungry Joe 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Milo 는 재물귀신이라 불리울 만큼 전시의 조직적 모순을 이용하여(예컨대 식량난 문제) 致富한다. 그는 이익을 위해서는 아군 기지도 서슴없이 폭격한다. 그는 조직 속에 살면서도 하나의 개인적인 조직 즉 Syndicate 를 만든다. Yossarian 은 이들과 다르다. 그는 결코 체념하지도 않고, 이익추구나 조직의 이용에도 관심이 없다. 그는 필사적으로 거부와 반항과 탈출의 방법을 모색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의 희생

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그는 ‘to live forever or to die in the attempt’하기로 결심하니, 그의 출격목적이 오직 ‘to come down alive’ (p.37)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he bolted for his life wildly on each mission the instant his bombs were away, hollering “Hard! Hard! Hard!”(p.37)함이 당연하지 않았는가. 그의 이러한 도피적 행동은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공포에서 비롯하고 있다. 작품 속에 ‘Aarfy did not have brains enough to be afraid. Yossarian did have brains and was’(p.58)란 작가의 comment가 나온다. 이 말은 공포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의 하나임을 비추어 볼 때, 무디어질대로 무디어진 Aarfy, 더 나아가서는 조직사회 속의 기계적인 인간들에게 던지는 조소임이 분명하다. 특히 Heller는 작품 전편을 통해 공포가 비겁한 자의 속성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일 수 있는 조건이며, 용감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 그들의 참전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의지와는 무관한 타의에 의한 강요 때문이었다. 그 강요는 국가나 조직이라는 거대한 비인격적인 괴물이 개인의 고귀한 생명을 그들의 제단에 바치도록 종용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부나 탈출의 시도는 바로 개인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작가는 암시적으로 역설한다. Yossarian의 공포는 그래서 Hungry Joe의 악몽과 묘한 공명을 일으킨다.

Hungry Joe answered, “Everybody has nightmares.” Yossarian thought he had him. “Every night?” he asked.

“Why not every night?” Hungry Joe demanded. And suddenly it all made sense. Why not every night, indeed? It made sense to cry out in pain every night...(p.63)

Yossarian의 반항은 하나씩 사라져 가는 친구들의 죽음과 더불어 몇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일종의 도피라 할 수 있는데, ‘doubt of jaundice’라는 의심스런 괴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때이다. 바로 출격에서 귀환 중 자기의 비행기 안에서 Kraft의 죽음을 목격한 후이다. 그때 그는 방향을 잘못 잡아 총격을 받았던 것이다. Yossarian은 Kraft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었다는 죄의식과 자책으로 줄

곧 괴로와 한다.

두번째는 Snowden이 역시 자기의 비행기내에서 “I’m cold. I’m cold”라 외치며 처절하게 죽어가던 광경을 목격한 후에 벌인 제복착용 거부 즉 나체소동이다. Yossarian은 Snowden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일체의 제복이나 의복착용을 거부하고 발가벗은 채 사무실과 영내를 돌아다녔던 것이다.

세번째의 반항은 Nately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의 spinning around와 출격거부 사건이다.

Yossarian marched backward with his gun on his hip and refused to fly and more missions. He marched backward because he was continuously spinning around as he walked to make certain no one was sneaking up on him from behind. Every sound to his rear was a warning, every person he passed a potential assassin...(p.415)

그의 제복착용 거부하는 자아가 질식되어가고 말살되어 가는 상황에서 모든 형식과 가식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몸부림이다. 또 행진 중의 spinning around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하는 동작인 동시에, 항시 떨치려고 기회를 노리는 그물(Catch)로부터의 도피동작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항적 행동은 이미 개인적인 공포의 단계를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에게 던지는 상징적인 풍자의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또한 간파할 수 없다. 이 작품의 comic invention의 내면에 깔린 어두운 분위기의 흐름은 하나씩 결을 떠나 죽어가는 친구들의 비극적 운명, 그리고 상황의 위협에 대한 Yossarian의 perception에 기인하고 있다. 이 perception은 그의 isolation에 대한 인식과 병행하고 있다. 차츰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적이 바로 자신이 속한 조직사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The enemy...is anybody who is going to get you killed, no matter which side he is on, and that includes Colonel Cathcart.” (p.136)

### Ⅲ.

비평가들은 Chaplain Robert Oliver Shipman의 존재를 상당히 소홀히 다루고 있는 듯 하다. 본인은 그가 작품의 character나 story 구성에 있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강조하고 싶다.

Chaplain은 높은 위치에서 종교의 코리를 說하고, 축복을 施惠하는 형식적 의식에 치중하는 인물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 속에서 정신적 또는 종교적 체현을 추구하는 한편, 다른 군인들과 순수한 인간적인 자세에서 共感하고자 노력하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과장과 戲謔로 가득찬 적개미같은 등장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피와 살을 갖춘 인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Chaplain은 Yossarian을 중심으로 해서 Colonel Cathcart의 반대의 극에서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Yossarian의 반항과 거부적인 행동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극히 대조적임이 흥미롭다. 제복 착용을 거부하여 발가벗고 다니는 등, 슬한 사고와 말문을 일으키는 Yossarian에 대해 Cathcart는 굉장한 공포와 위협을 느낀다.

The chaplain's first mention of the name Yossarian! had rolled deep in his [Cathcart] memory a portentous gong... He began to perspire and tremble. There was a sinister and unlikely coincidence exposed that was too diabolical in implication to be anything less than the most hideous of omens... A moment ago there had been no Yossarians in his life; now they were multiplying hobgoblins... at the thought that Yossarian was destined to serve as his nemesis. (pp. 244~245)

Chaplain의 반응은 이와 정반대이다. Snowden의 장례식을 주재하며, 그는 하나씩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가는 병사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돕지 못하고, 그들의 명복만 빌어야 한다는 자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때 그의 눈에 비친 Yossarian의 나무에 걸터앉은 발가벗은 모습이 그에게는 a manifestation of the Almighty's censure for the blasphemy and pride inherent in his function' (p. 290)으로 보인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이러한 종교적 체현은 곧 새로운 생명감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진다.

There were no miracles: prayers went unanswered... would truly have resigned both his calling... taken his chances as a private... —had it not been for such successive mystic phenomena as the naked man in the tree... and the cryptic, haunting,

encouraging promise of the prophet Flume in the forest only that afternoon: "Tell them I'll be back when winter comes." (p. 304)

Chaplain은 삭막하고 비 인간적인 전쟁상황 속에서 Yossarian의 유일한 정신적인 반력자가 되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은 비슷하게 epiphany를 경험한다. 물론 Chaplain의 경우는 다분히 종교적인 성질을 띠고 있지만, 그들이 나누는 *deja vu, presque vu, jamais vu*에 대한 대화는 그들의 공통된 관심과 추구하고 정진하는 방향이 일맥상통함을 보여 준다. 사실상 Chaplain의 정신적 체현은 Yossarian이 그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두 사람은 또 비슷하게 죄의식 때문에 괴로와 한다. 이는 이미 언급이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도 한다. 두 사람은 다같이 비극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들의 isolation을 자각한다.

... There was so much unhappiness in the world, he [Chaplain] reflected, bowing his head dismally beneath the tragic thought, and there was nothing he could do about anybody's, least of all his own. (p. 223)

Chaplain과 Yossarian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면, Yossarian은 그의 행동의 동기가 개인적인 이유에서 출발한 반면 Chaplain의 경우는 전체 인간들, 나아가서는 인류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람 다 군대조직의 모순을 꿰뚫어 보고, 저항하지만, 그 방법이 서로 다르다. Chaplain은 괴로움 속에서 베투어 오다, Cathcart에게 더 이상 공격 목표량을 울리지 말라고 정면으로 대항한다. 마지막에 Yossarian이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떠나갈 때 휘하는 Chaplain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다. "Good-bye, Yossarian and good luck. I will stay and persevere." (p. 477)

두 사람의交友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Chaplain을 향한 Yossarian의 사랑과 연민이다. 이것이 바로 가식적이고 모순된 상황에서 그가 쓰고 다니는 가면 뒤에 숨은 그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이는 작품의 첫줄에서부터 언급한 신 언처럼 던져놓은 'It was love at first sight.' (p. 13)란 말로써 이미 명백하다(작품의 초두 뿐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서도 두 사람이 인정어린 각별을 나누고 있음 또한 의미 심장하다.).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전쟁 미치광이들 틈에서 맨 처음 Cha-

plain을 탄탄 Yossarian은 그의 수줍어하고, 어색해 하며, 혹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지나 않을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생동하는 감각과 순진성에 놀람과 감동, 그리고 보호의식에 찬 연민을 느낀다.

An innocent nest of ancient pimple pricks lay in the basin of each cheek. Yossarian wanted to help him.

"...I'm not even sick."

"That's good."(p.19)

케번과 풍자, 역설 등으로 주위 사람들을 찡지 궁지로 몰아넣는 Yossarian도 그의 앞에서는 가장 가식없고 순수한 자세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천화력은 Chaplain도 마찬가지로 느낀다. 해서 그는 'He had no real friends before meeting Yossarian'(p.287)하며, 'He remembered very distinctly...his feeling that he had met Yossarian somewhere before the first time he had met Yossarian'(p.285)의 déjà vu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 본다면, Chaplain과 Yossarian의 정신적인 유대, 그들의 죄의식과 고뇌가 작품의 내면에 깔린 비극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이 조직사회에 보내는 풍자, 그리고 외면적인 comic invention과 관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또 Chaplain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병소와 부장 일변도인 Yossarian의 성격의 다른 일면을 접하게 된다는 말도 꽤 놓을 수 없다.

## Ⅶ.

Jerry H. Bryant는 *The Open Decisio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And Its Intellectual Background*에서 이 작품에 대한 Heller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Heller claims that *Catch-22* does not attack the war or question its legitimacy: it deals with "contemporary, legimented society". His satire is directed against the institutions that make up this society, business, psychiatry, medicine, law, the military, assuming, as he says, that certain poeple and social

groups act the same in war as they do in peace.<sup>(4)</sup>

작품 가운데서도 전쟁이란 특수 상황을 일반적 상황에다 적용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간간이 눈에 띈다. 우선 Doc Daneeka가 하는 "...Yossarian, we live in age of distrust and deteriorating spiritual values. It's a terrible thing.(p.49)이 그러하다. Chief White Halfoat가 유전을 발견했다는 이유때문에 쉴 새 없이 쫓겨 다녀야 했다는 비극적인 우화 속에는 케마튼 현대세계를 통박하고, 인종차별과 물욕에 눈이 먼 미국사회의 양심을 찌르는 강한 풍자가 섞여 있다. 둘론 Yossarian은 Halfoat의 얘기가 거짓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Chief White Halfoat란 paradoxical한 이름을 가진 그 인디안의 얘기 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통렬한 아픔을 수반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다. 사실 Yossarian 자신도 무당하게 Canada로 쫓겨 갔다가 미국의 이민정책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한 종족의 운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서 Halfoat의 얘기는 그에게 'a horrible joke'(p.52)인 것이다.

또 Doc Daneeka의 전사통지를 받고, 이어 각 사회 단체에서 Daneeka를 매장하기 위해 답지하는 돈을 받으며 그의 아내는 "...so many separate organizations were willing to do so much to bury Doc Daneeka who, back in Pianosa, was having a terrible time trying to keep his head on the ground...(p.365)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개인의 탈살을 위해 쓴 잡은 군대와 일반 사회의 음모를 일별하게 된다.

이상 몇가지와 더불어 보다 중요한 것은 Yossarian의 태도와 의식의 변화이다. 즉 개인적 이유인 공포와 'keeping alive'에서 출발한 그의 반항과 거부가 차츰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생존과 조건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화를 가능케 한 요인이 Chaplain에 대한 사랑과 연민, 정신적 체험, 그리고 Kraft, Snowden, Kid Sampson, Mcwatt, Nately, Dunbar 등 어려움을 겪다 사라져간 인물들에 대한 연민과 죄의식이다. 몇번의 반항적인 出行을 연출하면서, 그는 문제가 단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님을 차츰 깨

(4) Jerry H. Bryant *The Open Decisio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and Its Intellectual Background*(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0) p.156.

닫게 되며,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씩 걸을 떠나 isolation이 심화됨에 따라 그러한 느낌은 역설적으로 더욱 강해진다. 해서 친구들의 unnatural tragedy가 그를 괴롭힐 적마다, 'Someone had to do something sometime'(p.430)을 절감하는 것이다. 모든 친구가 다 죽고 이제 자신과 Hungry Joe란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곧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as he saw the Chaplain's face go pale.

"Chaplain, what is it?"

"Hungry Joe was killed."

"God, no! On a mission?"

"He died in his sleep while having a dream. They found a cat on his face."(p.459)

이러한 가운데 그는 두번의 epiphany를 경험하게 된다. 한번은 숲길을 거닐다가 비 온 뒤에 갑자기 솟은 바닷물이 점점 수가 증가하고, 그 크기가 부풀면서 자신의 뒤를 추적해 와 혼비백산 도망갔던 경험이다. 그 부풀어 오르고, 끝없이 증가하는 바닷은, 파괴의 폭연일 수도 있고, 땅에 묻혀있다 솟아오른 死者들의 망령일 수도 있고, 생명을 노리며 집요하게 추적하는 mad people에 대한 공포의 환영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 불쾌하고 불길스런 백일몽은 Hungry Joe의 악몽처럼 그를 더욱 위기의식 속으로 몰아넣는다. 또 한번은 Hungry Joe의 사망소식을 듣고 보게 되는 환자복에 파자마를 입은 아원 사람의 모습이다.

"We've got your pal, buddy. We've got your pal."

Yossarian was unnerved.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he pleaded in incipient panic.

"You'll find out, buddy. You'll find out." (p.460)

그가 그 tormentor에게 달려들자 그는 악의에 찬 웃음을 흘리며 사라져 버린다. 여기서 epiphany란 것은 그가 이러한 환각적인 체험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있음을 일컫는다. 그가 보는 것은 점차로 커져가는 악의 세력다, 점차로 증가하는 죽음과, 그와 반비례로 점차로 고립화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이다. 그와 더불어 그의 태도나 어투가 차츰 진지하고 심각해지며, 처음의 군대조직에 보내던 조소도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와 조건에 대한 사색으로 바뀐다. 그가 Rome 거리를 걸

으면서 풀게되는 paradoxical한 질문들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바로 남루하고 깃기없는 한 소년의 모습을 대하고, 연탄과 분노의 감을 느낀 직후의 일이다. 술한 질문들 가운데 몇가지만을 뽑아보자.

What a lousy earth! He wondered how many people were destitute that same night even in his own prosperous country, how many homes were shanties, how many husbands were drunk and how many wives were socked, and how many children were bullied, abused, or abandoned. How many families hungered for the food they could not afford to buy? How many hearts were broken?... How many honest man were liars, brave men cowards, loyal men traitors...(p.436)

Rome의 거리는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불결함 속에서 경찰과 매춘부들이 관을 치고 있다. Text의 pp.437-439에 이르는 Rome의 거리 환경은 Dante의 *Divina Commedia* 가운데 "Inferno"를 연상케 하는 image와 분위기로 가득차 있어서, 지금까지 별개의 흐름으로 내뿜어오던 최극적 요소와 비극적 요소가 합류를 이루는, 말하자면 이 작품의 clymax라 할 수 있다. 그 속을 걷는 Yossarian은 Virgil에 의해 인도되는 Dante요, Raskolnikov요, Psychiatrist이며, Christ이다. ironic한 것은 그 전쟁의 희생자가 과거에는 강대한 지배력과 영화를 자랑하던 제국의 중심가라는 사실이다.

...he heard snarling, inhuman voices cutting through the ghostly blackness in front suddenly. The bulb on the corner lamp post had died, spilling gloom over half the street, throwing everything visible off balance. On the other side of the intersection, a man was beating a dog with a stick like a man who was beating the horse with a whip in Raskolinkov's dream... Yossarian quickened his pace to get away, almost ran. The night was filled with horrors, and he thought he knew how Christ must have felt as he walked through the world, like a psychiatrist through a ward full of nuts, like a victim through a prison full of thieves... (p.438)

그 다음 길 모퉁이에서 한 사내가 어느 소년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광경을 본다. 주위에 둘러 선 사



람들은 미동도 않고, 말릴 생각도 않는다. 순간 그는 언젠가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는 Dejavu를 경험한다. 그는 그 무서운 일치감에 의혹과 공포의 전율을 느낀다. 이어 그는 경찰들에 의해 구급차에 실리면서 외치는 어느 Italian의 “Police! Help! Police!”라는 비명에 또 한번 epiphany를 경험한다. 그의 비명이 그에게는 아주 ambiguous 해서, 그곳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덤 속 친구의 경고의 외침으로 들리는 것이다.

Aarfy의 소녀(배춘부) 방에 이르러, Aarfy가 그 소녀를 창밖으로 던지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는 꾸짖는다. ‘You can’t take the life of another human being and get away with it, even if, she is just a poor servant girl. Don’t you see? Can’t you understand?’(p. 442) 그의 질책은 부감각하고 비인간적인 살인에 대해 그동안 쌓였던 분노의 폭발이다. 그러나 ironic한 것은 그 질책이 곧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귀대환 후 그는 Cathcart로 부더, 고향으로 보내 줄테니, 출격거부를 철회하고, 고향에 가서 자신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 선전해 달라는 유혹을 받고 일단 승락하기 때문이다. 그의 승락은 곧 다른 조종사들의 계속적인 출격회수 증가를 찬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 개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수 많은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 속으로 완전히 승락한 것은 아니다. 그는 분명히 그것이 ‘lousy and odious deal’(p. 465)임을 알고 있다. 뿐 아니라 그가 혼자만의 생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인간의 비극과 모순을 목격했던 것이고, 또 그것은 자신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a way of losing myself’(p. 470)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은 그가 육신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를 지금까지 지탱해 오던 모든 정신적인 가치는 굴복하는 그 순간에 붕괴되어 버린다는 뜻이다. 그 정신적인 가치는 인간의 근본적인 morality이며, 단순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인간 생명에 대한 애정이며, 동시에 自由意志이기도 하다. 그의 탈출에 대한 바렘은 Orr의 탈출 성공으로 인해 가능성 있는 희망으로 그의 마음속에 점화된다. Orr는 출격을 나갔다가 몇번씩 고의적인 해상추락 사고를 일으켜 탈출 연습을 한 뒤, 결국 머나먼 Sweden으로 raft

를 타고 저어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Yossarian이 감동한 것은 그 사건이 자신에게 희망을 심어 주기도 했지만, 그 보다는 그 업적을 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투쟁의 승리로 보았기 때문이다. 해서 그는 “It’s a miracle, a miracle of human intelligence and human endurance.”(p. 473)라 외치는 것이다. 이제 그의 결심은 완전히 굳어졌다. Danby가 도망은 negative한 행동이고, escapists들이나 할 일이라고 먼저서 쉼터 보아도 보듯유만 쉼 뿐이다.

“I’m not running away from my responsibilities. I’m running to them. There is nothing negative about running away to save my life. You know who are the escapists are, don’t you, Danby? Not me and Orr.”(p. 475)

그가 말하는 escapists들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자신의 생명에 대해 무책임한 인간, 타인의 생명에 대해 무관심한 인간, 인간성들을 상실한 automation들이 아닐까? 인간은 결코 ‘vegetable’(p. 470)이 될 수는 없다. 개인의 의지를 박탈하려는 부조리하고, 모순에 찬 crazy society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탈출하는 것, 그것은 crazy man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사람이 역설적으로 진정 sane man임을 작가는 강조하는 듯하다. 이제 남은 일은 ‘jump’ 뿐이다.

“I’ll jump.”

“Jump!” Major Danby cried.

Yossarian jumped. Nately’s whore was hiding just outside the door. The knife came down, missing him by inches, and he took off. (p. 477)

이 마지막 장면에서 Heller는 최후의 trick을 쓰고 있다. 쫓점은 Yossarian의 생명을 뺏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하는 Nately의 whore에 있다. 언뜻 main story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episode가 실상은 이 작품의 결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본인은 ‘Jump into another catch’라 부르코자 한다. 왜냐하면 Yossarian이 군대조직에서의 탈출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Nately’s whore의 毒手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한 여운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소녀가 Yossarian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쟁의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것처럼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죄가 있다면, Nately가 살아있을 적에 장난삼아 그

의 코를 한번 쿨어박은 일과 Nately의 전자 소식을 알려준 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Rome에서, 동향에서, 그리고 Pianosa의 부대 내에서, 곳곳마다 매복해 다니며 기회있을 때마다 습격한다. 그녀의 별간도 주위 환경에 맞추어 다양하다. 즉 동향에서는 정비공으로, Pianosa의 숲에선 농부로 변장한다. 나중에 Yossarian은 Hungry Joe를 시켜, 그녀를 비행기에 태워 가지고, Italy 너머에 있는 적의 걸린 저 편에 날아가 공중에서 낙하산을 붙여 던져 버린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부대에, 이번에는 차원으로 변장해서 나타나 그에게 중상을 입힌다. 이러한 통탄무계한 episode는 그가 영원히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결말에 가서 무사한 탈출의 happy ending을 기대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원래의 상황이었던, 'There is no escape'(p.130)이다, 'That's the catch! They don't leave you alone'(p.470)과 같은 환경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Nately's whore의 다양한 변장은 어디서나 따라다니는 이 환경의 'metamorphosis'이다.

이러 前述한 바 있는 Bryant의 말처럼 Heller는 *Catch-22*의 전쟁상황을 통해 'contemporary regimented society'를 다루었다.

여기서 전사의 군대사회가 일반적인 인간사회와 한 단면이라면, Yossarian이 戰場은 빠져나갈 수 있으나, 인간사회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사회 전체가 무수한 환경의 집결체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작품의 제목이 뜻하는 바 일컫는 *Catch-22*의 의미일 것이다. 해서 결국 Yossarian의 탈출은 'jump into another catch'일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Yossarian은 탈출 후 다가가 찾아갈 곳으로 Sweden을 택했는데 그 이유가 "..., where the level of intelligence was high and where he could swim nude with beautiful girls." (p.328)라고 했다. 물론 더 큰 이유는 전쟁과 군대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라. 그러던 다윈 작가가 그곳을 理想郷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대답은 Heller의 다음 작품 *Something Happened*에서 찾을 수 있다. 즉 *Something Happened*의 Slocum이 살고 있는 사회는 분명히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회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다. Slocum의 생활은 오히려 Yossarian의 생활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여기서 Slocum은 가정이라는 뜻에 걸린 채 차츰 정신분열 현상을 일으켜, 아무런 명백한 이유도 없이 자기 아들을 질식사시켜 죽이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이상 열거한 이유들을 종합하면, *Catch-22*는 어떤 범규라기 보다는 상황이고, 어떤 인간도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다. 마치 계속 늘어만 가는 출격목표 회수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의 추구와, 자아의 實現, 또 새로운 삶의 출발(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행하든, 행복하든)을 위한 그의 탈출은, 하나의 적극적인 도전인 동시에, 나름대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V.

지금까지 작품 *Catch-22*를 주로 plot와 주인공 Yossarian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작품의 구성이 주인공의 현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의식과 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조직에 맹목적으로 충성, 헌신하는 인물들에 대한 그의 반응과 태도는 냉소적이고 군자적인 반면, 인간적인 감각과 감정을 갖춘 인물이나, 조직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동정적이고, 순수하고 견지했다. 인간이 작품의 외면적인 희극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면, 후자는 내면적인 비극적 분위기를 작품 밑바닥에 깔아 주고 있다. 이 두개의 상반된 흐름이 고묘하게 교차하면서 어울려다가, 戰禍에 찌른 Rome의 거리 풍경에서 合流를 이룬다. 이러한 story의 전개는 Yossarian의 의식 및 태도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즉 슬픈 희극을 연출하고, 탈출하는 동안 애초에 개인적 공포에서 출발했던 그의 반항과 탈출이 인간의 근본적인 생존과 그전에 대한 관심으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을, 개인을 억압하고 파멸시키려 드는 군대라는 모순에 찬 조직사회로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반항하고 거부하다 결국은 탈출하는 한 공군장교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 그의 행동의 의미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상, 그의 탈출은 이미 개인적인 문제를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의 인간인 Yossa-

rian도 그 문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인간의 absurdities는 따라 다닐 것이다. 결국 Catch-22는 단순한 군대의 법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생활이며, absurdities 또한 군대조직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에 까지 확대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서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일이다. Yossarian의 탈출이 바로 그러하며, 끝까지 남아 전디겠다는 Chaplain의 결심 또한 그러하다. 이것이 escape와 catch의 습박극질 뒤에 얻는 도덕적인 결론이 아닐까 한다.

### Bibliography

#### 1. Texts

Heller, Joseph. *Catch-22*. London: Corgi Books 1977.

\_\_\_\_\_, *Something Happened*.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0.

#### 2. References

Bryant, Jerry H. *The Open Decisio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And Its Intellectual Background*. Macmillan Publishing Co., 1970.

Karl, Fredrick R. "Joseph Heller's *Catch-22: Only Fools Walk In Darkness*", *Contemporary American Novelists*, edited by Harry T Moor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74.

Tanner, Tony. *City of Words*, Harper and Row, 1971.